

# 내가 못 본 천국

## The Heaven I Have Not Seen

누가복음 16:19-31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1년 12월 11일 설교

<sup>19</sup>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연락하는데 <sup>20</sup>나사로라 이름 한 한 거지가 헌데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sup>21</sup>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sup>22</sup>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sup>23</sup>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sup>24</sup>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며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sup>25</sup>아브라함이 가로되 “얘,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sup>26</sup>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 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sup>27</sup>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sup>28</sup>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sup>29</sup>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sup>30</sup>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며.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sup>31</sup>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 신학자의 경험

석 주 전 뉴저지의 어느 교회가 한국의 유명한 목사를 초청해 집회를 했습니다. 신성종 목사라고, 목회도 오래 하고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교수로 오래 가르치고 저서도 일흔 권이나 낸 꽤 이름난 분입니다. 금, 토, 주일 이렇게 사흘을 집회를 했는데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라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고 금, 토 이들은 그 분이 체험한 걸 바탕으로 간증집회를 한 모양입니다. 혹 가 보신 분, 아니면 소문이라도 들어 보신 분 있습니까? 집회 주제가 “내가 본 지옥과 천국”입니다. 엄청 나지 않습니까? 지옥과 천국을 직접 다 보셨답니다.

생소한 이야기는 아니지요. 한국 교인들에게 천국 단체관광을 처음 시켜 준 사람은 펠시콜레라는 사람입니다. 그 전에도 그런 체험을 했다는 사람이 없진 않았겠지만 히트는 그 사람이 처음 했습니다. 인기가 많이 식은 지금도 이 사람 책은 꽤 팔리는 모양입니다. 최근에는 주 남 토마스라는 한국계 미국인이 천국에 다녀온 뒤 <천국은 확실히 있다>는 책을 써 한국 교인들이 그걸 읽고 또 천국에 갔다갔다하는 모양인데 요즘은 은하철도 구구구가 고속철이 되었는지 천국여행을 다녀온 다음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사람도 제법 있습니다.

펠시콜레 책을 보면 한 마디로 엉터리입니다. 속임수지요. 주 남 토마스라는 사람은 책도 책이지만 시한부 종말론에다 엉터리 예언까지 섞여서 아주 복잡합니다. 문제투성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천국을 보았다 하는 이 분은 신학자입니다. 정통 신학을 공부하고 보수 신학교에서 평생 가르친 분으로 자칭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서울의 커다란 교회에서 목회도 했으니 기도 안 하는 신학자라고는 다르겠지요? 그런 분이 천국과 지옥을 환상을 통해 팔일 동안 두루 보고 왔다 하니 사람들이 폭발적인 관심을 보입니다. 관심보다 더 심각한 건 신뢰입니다. 일단 믿고 시작합니다. 이런 훌륭한 분이 환상을 보셨다면 정말일 거다. 펠시콜레나 주 남 토마스는 못 믿어도 이 분은 믿을 수 있지 않겠나, 아니, 꼭 믿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보았다 하는 내용

이 분이 한 간증집회는 동영상을 통해 조금 보았습니다. 간증 내용을 누가 글로 정리한 게 있어 그건 다 보았습니다. 책은 사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읽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웬만한 건 다 있지 않습니까?

평소 독서하고 답을 쌓은 분들은 이 책을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구성이 참신하고 내용이 꽤 풍성합니다. 천국의 구조, 지옥의 구조 이런 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천국 어디에 갔더니 누가 있더라, 지옥 몇 번째 층 동쪽에는 누구누구가 있고 서쪽에 가니까 아무개 아무개가 있고 하면서 세계위인전집에 나오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목사나 장로 같은 사람도 꽤 많이 등장합니다. 정말 멋진 환상을 보셨구나, 천국 지옥은 정말 있는 모양이다, 나도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책, 특히 고전을 조금이라도 읽으신 분들은 이게 단테의 <신곡>을 베낀 건 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안 옵니다. 그런 걸 사자성어로 하면 식자우환이지요. 알아서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이 분이 자기 입으로 단테의 <신곡>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했지만 이건 영향도 아니고 벤치마킹도 아니고 그냥 베낀 겁니다. 단테는 지옥이 아홉 층이더라 했는데 이 분은 세 층으로 줄인 다음 그걸 동서남북으로 나눈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분이 팔일 동안 환상을 보았다 했지요? 단테는 몇 해를 수고해 서양 고전 가운데서도 대작인 <신곡>을 썼지만 그걸 베끼는 데는 사실 팔일까지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단테도 사실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베르길리우스라는 고대 로마 시인의 책 <아이네이스>에 보면 주인공 아이네아스가 쿠마의 무녀를 안내자로 삼고 저승세계를 방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의 구조를 그대로 본땀습니다. 그렇지만 단테는 베끼는 대신 창작을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불신자가 노래한 신화를 성경의 원리를 바탕으로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렇지만 단테를 베낀 신 목사 이 분은 단테가 성경을 바탕으로 만든 문학작품을 베끼다시피 해 놓고서는 집회에서는 자기가 환상을 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 그릇된 가르침

교수도 표절할 수 있고 학자도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요. 도적질하지 말라! 목사는 더 안 됩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 아닙니까? 신학교 교수를 했다는 사람은 더더욱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학교 교수는 교인들을 가르칠 목사를 훈련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진실하지 못한 일을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 물이 들겠습니까?

이 분은 환상을 본 게 아닙니다. 이 분 책 서문에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내 나이 칠순을 넘기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죽음을 준비해야겠기에 죽음에 관한 수많은 책들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그것을 정리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느낀 것을 논문이나 일반 서적처럼 이론적으로 쓸 수도 없어서 생각다 못해 소설 형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기로 했다.” 집회에서는 환상을 본 거라 하더니 책에서는 단테의 영향을 받았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 아니라 단테가 준 환상입니까? 책을 하도 열심히 읽어 책에서 본 그게 꿈에 나타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소설 형식으로 썼다 했습니다. 소설은 다른 말로 허구라 합니다. 창작, 곧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책도 보고 세상 지식도 동원하고 가끔 꿈에 나타난 것도 뒤섞어 상상력을 동원해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집회에서는 마치 환상을 그대로 적은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하지 못합니다.

내용은 더 문제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목사가 맞나, 신학을 가르쳤다는 사람이 맞나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시작부터 틀렸습니다.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기도하기를 이제는 직접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팔일 간 지옥과 천국을 보여주셨다.” 천국을 보여 달라 했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기도도 아닙니다. 하면 안 되는 기도를 해 놓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하고 썼습니다. 이게 평생 말씀을 가르쳤다는 목사, 신학자가 할 소립니까? 신학박사가 했다고 따라할 사람이 많을 텐데 참 큰일입니다.

결론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나처럼 의심 많은 사람에게 이런 환상과 꿈이 없었다면 나는 지옥과 천국을 분명하게 믿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이 한 문장으로 이 분은 자기의 평생 수고를 물거품으로, 바보짓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말씀을 연구해 가르쳤을 터인데 그건 아무 소용이 없고 그저 여드레 동안 보았다는 그 환상이 믿음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믿습니까? 말씀을 믿습니까, 체험을 믿습니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는 게 지옥이고 천국인데 환상을 못 보았더라면 분명하게 못 믿었을 거라고요? 말씀은 희미한 믿음밖에 못 주는데 체험은 분명한 확신을 준다면 성경이고 신학이고 다 때려치우고 다 같이 오산리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수로 한 말 같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신학자가 실수해도 될 게 있고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될 게 있지 이런 식이라면 예수 말고 다른 것도 한 번 믿어 보았더라면 하는 말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 나사로 이야기

이 분 책과 간증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분문을 여러 번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왜 기가 찰니까? 주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은 그 분이 한 말, 그 분이 쓴 글하고 정반대인데 그걸 뻔히 보고 인용까지 하면서도 주님이 하지 말라 하신 일을 하고 있으니 기가 차지요. 성경을 비뚤게 읽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꾸로 읽었습니다.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쳤다는 사람이 성경에 이렇게 확실하게 써 놓은 걸 못 알아들으면 도대체 누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바로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 말씀인데 이게 비유인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본문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비유 같기도 하고 아브라함이라는 실제 인물이 등장하니 사실 같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뜻이 무엇이나 하는 겁니다. 부자로 살던 사람이 죽어 지옥에 가고 거지로 살던 나사로를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하십니다. 언뜻 보면 이승 살면서 누리는 것하고 저승 가 누리는 게 정반대라고 가르치시는 것 같지만 나중에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부탁하는 내용을 보면 그냥 부자로 산 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은 게 문제라 하시는 겁니다. 집 때문에 헐벗고 몸도 아픈 거지가 빌붙어 살고 있는데 저는 그걸 외면한 채 혼자 호의호식하고 사치를 즐기며 살았으니 잘못 산 거지요. 게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종처럼 부리려 한 걸 보면 나사로를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신 목사 이 분이 간증을 하면서 이 본문을 여러 번 인용한 것은 본문에 천국과 지옥에 관한 묘사가 간단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천국이라는 곳이 정말 있고 지옥이라는 곳도 정말 있다는 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으니 이보다 더 분명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은 본문 말씀이 비유가 아니고 사실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환상으로 천국을 본 것도 사실이라 말하기가 좋겠지요.

그런데 이 분은 성경을 성경 그대로 안 보고 제 주장을 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먹고 있습니다. 본문을 인용하면서 본문의 가르침하고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 불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가족들은 이 고생을 안 하도록 나사로를 세상으로 보내 가족들에게 말을 좀 전해 달라 부탁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배우면 된다는 말이지요. 그랬더니 부자가 “아닙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말하면 회개할 겁니다” 했습니다. 그 때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 은혜로운 간증?

아브라함이 한 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입을 빌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라면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말해도 안 듣는다, 다시 말해 사람을 바로 권면하고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 말씀 성경이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으로 안 된다면 다른 길로는 안 된다, 심지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저승에 가 보니 정말 이렇더라, 얼른 정신 차리고 바로 살아라,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기적이 많지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같은 기적은 없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게 놀라운 기적을 갖고 말을 해도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분 책 때문에 한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집회도 몇 번 안 했는데 야단입니다. 인터넷에 집회 동영상도 있고 요약한 글도 있습니다. 이 분 간증을 듣고 나도 바로 살아야겠다, 천국과 지옥이 그렇게 정말 있다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야겠다, 그런 글을 쓴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느낌이 혹 드십니까? 우리 신앙생활 늘 아쉬움이 있지요. 좀 확끈하게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안 된다 싶지요? 그런 분들은 나도 그런 집회에 가서, 아니면 집회 동영상이라도 보고, 아니면 책이라도 사 읽고, 뭔가 심기일전해 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그런 집회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영상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책도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저승에 가 보니 이렇더라 그렇게 말해도 안 듣습니다. 누가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यो. 천국이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천국도 나오고 지옥도 나오지요. 성경 곳곳에 그런 말씀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서 지금 희미하게 살고 있습니까? 성경도 안 믿으면서 간증으로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진짜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말해도 안 들을 거라 하셨는데 이 분은 그냥 꿈에서, 환상으로 보았답니다. 그걸 들으면 성경보다 더 짜릿할 것 같습니까? 집회에만 다녀오면 확 뒤집혀 새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게 아니라고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부탁했더니 아브라함은 성경을 읽으면 된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성경으로 안 되면 희망이 없습니다. 성경을 평생 거드랑이에 끼고 살면서도 안 되던 게 간증집회에 다녀오면 바뀐다고 생각하는 그것부터 틀렸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못 하는 생각입니다.

## 잘못된 계시관

이 분 결론이 예수 잘 믿자는 겁니다.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순교자 다음으로 큰 상을 받더라 하면서 전도도 많이 하자 했습니다. 좋지요. 한국 교회가 하는 부흥회가 주로 그렇습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온갖 엉뚱한 이야기 우스갯소리 하다가 예수 잘 믿자 하고 끝냅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 오래 전 셰익스피어가 말했지만 끝이 좋다고 정말 다 좋다는 말인지 셰익스피어 책을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분 집회도 다른 부흥회랑 똑같이 끝이 납니다. 천국은 정말

있다, 지옥도 정말 있다, 그러니 예수 잘 믿자, 전도 많이 하자, 결론은 그렇습니다.

전도 많이 하라는데 누가 시비하겠습니까? 예수 잘 믿자 하면 무조건 아멘 해야지요. 이 분은 특히,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분이 천국에 가서 본 사람 가운데 착하게 살긴 했지만 예수는 안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가 천국에 있더라 했는데 슈바이처는 신학박사, 음악학박사, 의학박사 이렇게 박사학위를 세 개나 가졌으면서도 아프리카로 가 흑인을 위해 평생을 바친 참 고귀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는 안 믿었습니다. 슈바이처는 예수라는 인물은 역사에 없었다 하는 유명한 책을 쓰고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고 싶었다 했는데 선교부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선교사로 보낼 수 없어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선교지에 가서는 예수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의료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전도 안 하기로 약속하고 간 유일한 선교사가 슈바이처인데 신 목사 이분은 그건 몰랐던 모양입니다.

예수를 믿는 건 성경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은 예수 잘 믿자고 책도 쓰고 집회도 하고 다니면서 사실은 성경을 짓밟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인용했던 구절대로 하나님이 환상을 안 보여 주셨더라면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믿지 못했을 것이다, 이 말은 성경만 갖고는 확신을 할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체험을 갖고서는 믿을 수 없다가도 성경을 읽으면 확신이 생겨야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 체험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믿음에서 멀어졌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 건데 체험을 좋아하고 간증에 귀를 기울이니 성경은 그만큼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말해도 안 듣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보는 환상, 꿈, 그런 게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성경을 무시하고 무슨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환상을 하나님이 주셨다 했는데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완벽한 말씀을 주셨는데 뭐가 모자라 따로 계시를 더 주시겠습니까? 너도 나도 다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았다 하는데 사람마다 내용은 또 왜 그렇게 다릅니까?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엄청난 경험을 했다 하면서도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합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이 쓰라 하신 계시가 아니거든요. 체험 좋아하고 간증이 인기가 있는 시대는 말씀이 짓밟히는 시대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정신 차리자

신 목사 한 사람을 비판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분은 그냥 보기로 들었습니다. 우리 시대를 한탄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정신 차리자는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이런 엉터리 집회에 가서도 은혜 받았다 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그냥 감동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감동 주는 게 목표라면 소설 같은 것 인용해서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눈물 뿜는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뭐가 은혜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깨달음입니다.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려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능력으로 다시 살아 나셨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느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사랑에 오늘도 감사, 감격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말씀대로 나도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만 철저히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갖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거짓 선생이 많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유명한 목사가 하는 말이라고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신학교수가 하는 소리라고 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신령해 보인다고 감동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머리가 있고 생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어려운 구절도 있지만 기본적인 진리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날마다 보면서 왜 속습니까?

단테의 <신곡> 같은 건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 베르길리우스가 쓴 신화도 잘 읽으면 유익이 됩니다. 문학이니까, 예술이니까, 거기서 얻을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성경보다 더 낫다고 우기는 건 가까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으로야 성경 이야기하고 기도 어찌고저찌고 하지만 내용은 성경도 짓밟고 기도도 엉터리로 가르치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오직 말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분명히 믿습니다. 못 가 보았지만 말씀이 가르치니 믿습니다. 이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요 20:29).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니 정말 좋더라 하는 그런 천국보다 내 눈으로 못 본 천국, 말씀이 가르치는 천국,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천국, 그게 진짜 천국입니다. 설령 그런 진짜 천국을 눈으로 보았다 해도 말씀을 통해 믿는 것

보다 못한데 진짜도 아닌 가짜를 보고 확신이 생겼느니 어쨌느니 하는 건 정말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영혼을 혼란에 빠뜨리는 건 책이든 집회든 동영상이든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호기심 때문에 가까이하다가 내 영혼이 병에 걸립니다.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담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이 담기고,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말씀에 마음과 정성과 관심과 시간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는 것 바쁘지요. 직장 나가 일해야 되고, 집에서도 챙길 일이 많습니다. 그런 바쁜 삶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려면 인간적인 호기심을 다 내던지고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복과 은혜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데 우리가 다 되도록 합시다. (권수경 목사)